

사회

올림픽 올빼미족 건강부터 챙겨라

여름 스포츠 열기가 런던올림픽으로 한층 달궈지면서 어느 때 보다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림픽 경기 대부분이 한국 시각으로 밤 9시 이후부터 새벽 시간에 치러지기 때문에 TV를 장시간 시청하거나 응원전에 참가하는 이들은 건강을 해치기 십상이다. 당장 26일 밤 올림픽 축구 예선전에 이어 각종 경기 일정이 기다리고 있으며, 프로야구 하반기 레이스까지 겹치면서 이래저래 스포츠 마니아들은 체력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 설상가상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때문에 과도한 흥분은 심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평소 질환이 있는 사람은 생명까지 위협하고 전문이들은 경고한다.

◇새벽 무리한 응원과 흥분, 돌연사 부를 수도=최근처럼 33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는 날씨에는 흥분은 금물이다. 고령자, 흡연자,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 흥분상태의 응원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합성이나 환호도 쉬어가며 적당한 휴식=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축구 경기, 수천명이 운집한 거리 응원 현장은 찌렁찌렁 울려 퍼지는 스피커 소리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함성과 소음으로 가득하다. 자연히 경기 후에는 청력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발생한다. 거리 응원 현장의 소음 정도는 110dB 이상으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소음 협착이다. 특히 대형 스피커 바로 앞이나 나팔, 호각 등의 응원도구를 장난삼아 귀에 직접 대고 부는 등의 행동은 청력보호의 안전선을 넘은 위험한 행동이나 삼가야 한다.

2012 런던올림픽 개막식과 경기는 3D 생중계로도 방송되는데, 이때 평소 어지럼증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3D TV 시청을 자제해야 한다. 일반인들도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3D 시청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응원할 때 혹사당하는 신체 부위 중 하나는 '목'이다. "대~한민국!!"을 외치다 보면 어느새 목이 잠겨 목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이는 함성을 크게 지를 때 순간적인 충격으로 성대의 실핏줄이 터지고, 심한 부종이 생기기 때문이다.

열띤 응원으로 목소리가 변하면 성대를 쉬게 하는 것이 우선이며, 가능한 한 말을 하지 않거나 헛기침도 삼간다. 응원시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함성이나 환호도 수시로 쉬어주는 것이 좋다.

◇해충기자 chae@kwangju.co.kr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4.1도까지 오른 26일 한 시민이 광주시 서구 유덕동 상무주공 앞 사거리에서 복사열로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위 횡단보도를 걷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7일째 이어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132명 지위확인 패소

법원 "파견근로자 해당안돼"

광주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조정현)는 26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직원 박모씨 등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도급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면서 근태 관리와 임금을 지급하고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분리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사측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원청의 사용자가 직접 지휘·명령하는 체계로 불법 위장도급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직접 고용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금호타이어와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기아자동차

등 472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2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근무한 최씨는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폭염 속 밤잠 설치며 무리한 TV시청 금물 흥분때 고혈압·심혈관질환자 돌연사 우려

미국 건강식품 용기 바뀌치기

식약청, 업체 대표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26일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의 용기를 바꿔치기해 불법 유통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 칼럼약품 대표 윤모(48)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윤씨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다른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을 새로운 용에 옮겨 담아 자사 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16개 제품 3만여통(시가 4억6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아르틴나아신' 등 4개 제품 990여통(1700여만원 상당)에 라벨을 새로 붙여 팔고 수입신고 없이 국제택배로 받은 '코티신' 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엽산 400', '종합비타민', '골든멀티비타민'은 가능성 성분 함량이 표시량과 크게 달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 제품들은 국내 100여개 병원에 납품돼 영양보충제로 쓰였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적발된 제품을 모두 압류·폐기하고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오늘 날씨

☀ 해돋이 05시 38분
☁ 해질 19시 40분

🌙 달돋이 13시 55분
🌑 달짐 --시--분

광주 최고 35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덥겠다.

광주	맑음	25/35°C
목포	맑음	24/32°C
여수	맑음	25/31°C
나주	맑음	24/35°C
완도	맑음	23/33°C
구례	맑음	24/35°C
강진	맑음	23/33°C
해남	맑음	23/33°C
장흥	맑음	23/35°C
순천	맑음	23/35°C
영광	맑음	23/35°C
진도	맑음	23/32°C
전주	맑음	23/35°C
군산	맑음	23/32°C
남원	맑음	23/35°C
옥산도	맑음	24/32°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m 0.5~1.0m 목욕 07:42 00:46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m 0.5~1.0m 경교 매우높음 20:46 13:14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m 0.5~1.0m 여수 02:28 08:45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m 0.5~1.0m 15:53 22:0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8(토)	29(일)	30(월)	31(화)	8/1(수)	2(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25/35	25/34	25/34	24/34	24/35	24/34

대법, 강원목 입실군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원목(53) 전북 입실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8400만원은 대가성 있

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차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2010년 5월 선거 핵심 참모이던 방모씨 등이 조달해온 84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침뜸 김남수용 항소심도 유죄

무면허 침뜸 교육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구담(兪堂) 김남수(97)옹이 26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정호건 부장판사)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이 선고된 김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옹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 의사 면허없이 정구 침뜸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가르쳐 143여명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침뜸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무자격 의료행위로 인해 보건위생상 위험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 각종 편의시설 ●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실내골프연습장 SKY 골프 Club 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월계수타운

● 현대 ● 금호대우 ● 한국은행 ● 롯데백화점

새벽반(6:00) 환영

- 드라이빙레인지 모드
- 스윙분석
- 훈련모드(퍼팅, 어프로치 연습)
- PAR3 게임모드
- 스트로크 게임모드

연습장 이용시간

평일	06:00 ~ 23:00
토요일	10:00 ~ 22:00
일요일·공휴일	12:00 ~ 20:00

※틀짜주, 넷째주 일요일 쉽니다.

SKY 골프 Club 연습장 Tel. 372-3900 H·P. 010-3635-3784
서구 치평동 1187-2 월계수타운 지하1층